10년째 장애우와 함께하는 함평 '연꽃나비' 대표 임 명 란씨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 세상' 됐으면…"

18명의 장애인과 12년째 생활하고 있는 연꽃 나비 대표 임명란(47·함평군 신광면)씨는 봉사는 생활의 일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엔 그가 장애인의 대모(代母)로 비칠 지 모르나 자신은 오히려 이들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울 만큼 도움을 받고 있다.

임씨가 장애인들과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임씨가 폐교를 개조해 운영했던 청소년 수련원 '바다학교'를 찾은 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정집에서 사는 게 소망"이라는 말을 들었던 게 인연이 됐다.

36만㎡ 부지에 연꽃 단지 조성

"처음에는 3명의 장애우들과 생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명씩 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가족들이 15명이 넘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이루어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임씨 혼자서 15명의 장애인을 감당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IMF가 닥치면서 전기까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충남 아산시 인취사의 혜민스님으로부터 연뿌리 5개를 받은 뒤 임씨의 생활이 달라졌다. 정성들여 가꾼 5개의 연뿌리가 1년만 에 수십 뿌리로 자라 임씨의 수입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임씨는 직접 재배해 키운 연을 차로 만들어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며 판로를 개척했다. 현재 임씨는 함평군의 지원을 받아 신광면 월암리 82가구 주민들과 함께 36만 3천638㎡(11만 평)부지에 연꽃 단지를 조성해 700여 종의 연을 기르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는 가공공장도 건립해 연을 활용해 고추장, 된장, 조청, 화장품(클렌징 폼) 등 상품을 개발해 일본 수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임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사찰에서 쌀, 의류 등을 보내왔다. 인근 군부대에서 파견 나온 군인들이 청소와 빨래를 거들어 그의 수고를 덜어 주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을 되찾았고 한때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50명으로 늘기도 했다.

장애우 재활·자립심 키워

이후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임씨는 거절했다. 봉사활동을 내세워 장애인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장애인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장애수당을 스스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 줬다. 덕분에 8명의 장애인은 그의 품을 떠나 독립했다.

임씨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연꽃 가공공장을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계단에서 부터 공장 내부 시설까지 개조해 놓은 상태다.

이들 장애인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는 임씨는 "올해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깨끗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새해 소망을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임명란씨는 매일 저녁 연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교칼럼

도 일

'業'을 바꾸어 가는 새해

일 년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질문에 선종의 어느 고승은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답하였다.

매년 정초가 되면 일 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희망한다. 그러나 일 년 뒤에 계산해 보면 일은 우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또 어떤 것은 처음 얼마간만 관심을 쏟다가 뒤는 유야무야한 상태로 세월만 보내게 된다.

이러한 일의 결과를 두고 우리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든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정된 관습들을 '업(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업'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전생의 빚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지난 일들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태와 그에 의한 현실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과거의 일 때문에 나타난 것은 그 결과이므로 '업에 의한 과(果)'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려면 자신이 의도한 일을 매일 매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 비결이다. 이러한 행동이 즉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학업, 사업, 농업, 운수업, 제화업 등 자신이 의지하여 매일 살아가는 것을 직업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업'의 작용은 직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술이나 담배, 폭력 등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듯 바뀌는 일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된다.

종교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이 믿는 종교의 힘 때문에 바뀐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업'을 바꾼 결과일 뿐이다. 다시 말해 나쁜 '업'을 스스로 반성하여 좋은 '업'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종교를 가지면서 나쁜 성격이나 습관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따라서 마치 그림자가 물체의 모습을 닮듯 바뀌는 것이다. 화엄경에 의하면 '온갖 중생은 자기가 지은 번뇌의 업에 의해 자신의 몸과 세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였고, 아울러 '자기가 만든 인생과 세계가 업을 제쳐놓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하며 '업'이야말로 자기를 이끄는 주인공임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해를 맞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의 '업'을 바꾸어 나간다면 날마다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스님·송광사 율원〉

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

충남서 기름 제거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나무석)의 청소년적십자(RCY) 단원과 지도교사 50명은 구랍 27일 충남 서산시를 찾아 기름 제거 봉사활동〈사진〉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름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재해복구를 위해 마련됐다.

권철환 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독교 비판 이유 있었다"

안희환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 '목회와 신학' 신년호서 쓴소리

'기독교 박멸'이라는 섬뜩한 구호를 내세우는 안티기독교운동은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현실로 힘을 뻗쳐나가고 있다.

안희환 예수비전교회 담임목사는 최근 '목회와 신학' 신년호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비판의 내용도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기독교계는 안티 기독교운동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안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안티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11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안 목사는 안티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로 '기독교인에게 상처 받은 일'을 들면서 어느 네티즌이 어린시절 교회에 갔다가 헌금액수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 때문에 안티기독교 정서를 갖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이밖에 ▲중대형 교회의 세습 ▲비과세 ▲군부독재시절 조찬기도회 등 권력과의 밀착 ▲친일 활동 ▲단군을 섬기지 않는 등의 반민족주의적 성향 ▲집회에서 "사찰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등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거부감 ▲구약성서에 나오는 잔인한 명령 등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요 소재라고 안 목사는 밝혔다.

안 목사는 안티기독교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 자정운동 ▲교회세습 등 잘못된 부분은 고치되 기부금 성격을 가진 세금문제에 관한 교회 입장은 적극적으로 홍보 ▲역사상 과실에 대한 참회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 행위 중단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사역활동 등을 제시했다.

'목회와 신학' 신년호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국교회언론회의 안티기독교 관련 토론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라영환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등 안티기독교운동의 역사적 배경 등을 특집에서 다뤘다.

/연합뉴스

가족사랑 아버지 교실

광주가톨릭대 평생교육원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좋은 아버지기 되기라는 주제로 '가족사랑 아버지 교실'을 연다.

이번 교실은 오는 8일~3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한국 남성의 현주소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 ▲좋은 아들 되기-아버지와 화해하기(아버지에게 편지쓰기) ▲좋은 남편되기-아내와의 화해(아내를 사랑하는 이유 쓰기) ▲좋은 아버지 되기-자녀와 화해, 대화하기(자녀에게 편지쓰기) ▲올바른 가족관과 미래관 등으로 구성됐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12만원이다. 문의 062-380-221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